

“말이 아닌 성과, 행정은 속도” 민생안정지원금 원스톱 지급

임실군, 12개 읍·면 순회 군정 설명회·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병행 개최

임실군이 지난해 군정성과를 공유하고 새해 군정 목표와 비전,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전 읍면 순회 군정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군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19일 임실읍을 시작으로 27일까지 7일간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정 설명회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병행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속도감있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 방향을 군민과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임실군이 지난해 군정성과를 공유하고 새해 군정 목표와 비전,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전 읍면 순회 군정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군정 설명회에서는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이어져 온 주요 군정사업과 추진성과, 처리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올해 예산 운영방향과 역점 추진사업, 향후 군정 비전을 제시하며 임실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특히, 권역별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설명사업으로는 유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후 본격 추진중인 섬진강 유정호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임실을 정주할터센터 건

립, 임실치즈 식품·관광 명소화, 오수 세계명경테마랜드 조성, 성수산 생태숲 관광개발,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군의 미래성과와 정주여건 개선을 이끌 핵심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군은 같은 기간 관내 농업인 1,25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와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영농 신기술 보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교육 수요가 가장 높은 벼와 고추를 중심으로

지난해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방안,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농가 경영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농업기술센터 자체 강사들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했다.

심 민 임실군수는 “3선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군정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고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짐하며 “그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전용 지급 프로그램 구축

남원시는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전용 지급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원스톱 지급 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오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지급되며, 남원시는 설 명절 이전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지급을 완료해 명절 전후 가계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구축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프로그램은 신청서 출력, 대상자 확인, 지급 처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 특징으로, 현장에서 수기 명부 확인이나 별도 기록 없이도 신청과 동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청해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고령자나 다자녀 가구 등 개별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지급 초기 혼잡을 줄이고, 단기간 내 집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타 지자체의 경우 명부 수기 확인 방식으로 인해 지급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어렵고, 중복 확인·사후 기록 등 행정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남원시가 구축한 지급 프로그램은 지급 즉시 데이터가 시스템에 반영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며, 중복 지급이나 누락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의 사용처는 남원시립상권권 가맹점으로 한정해 대형 유통점으로서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입주자 모집

남원시는 미꾸리의 안정적인 대량생산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입주자를 오는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그동안 축적해 온 미꾸리 실내 양식기술을 기반으로 관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에 공모해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주생면 중동리 일원에 4ha 규모의 내수면 양식단지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 2024년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해당 부지에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미꾸리 공유양식장 20동을 조성 중이다.

사업은 오는 4월 최종 준공 예정으로, 2월 공모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4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은 남원시에서 조성한 양식장을 민간에 임대·운영하는 방식으로, 입주자의 초기 시설 투자비와 경영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입주자 모집

생활 속 위험요소 주민 제보 받는다

순창군,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순창군은 군민의 안전 증진을 목표로 오는 2월부터 지역 주민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해 점검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군민이 직접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제보하고, 민관이 함께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안전 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청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이며,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시설, 교량,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위험 요소 확인할 시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핸드폰 안전진

문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청된 사항은 군 안전재난과에서 검토 후 점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4월부터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의 위험 여부를 정밀 확인하며, 점검 완료 후에는 신청자와 시설 관리주체에게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문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청된 사항은 군 안전재난과에서 검토 후 점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4월부터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의 위험 여부를 정밀 확인하며, 점검 완료 후에는 신청자와 시설 관리주체에게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

순창군은 28일 ‘순창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거점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모사업으로, 순창군은 지난해 6월 공모에 참여해 9월 최종 선정된 이후 센터 조성

을 준비해 왔다. 육원인재숙지성관 2층에 조성된 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진로에 맞춘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EBS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와 함께 학습 코디의 체계적인 맞춤형 학습 교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광희 순창부군수,



남양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육원인재숙지성관 관계자,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전북센터장, 오름에듀테크 및 EBS 관계자, 학생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협력

임실군은 최근 임실군 보건의료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부터 본격화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의료 서비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팀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지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 간호를 진행한다.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돌봄·복지·의료 자원을 연결하는 사례 관리를 맡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공유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등

‘남원 화장품기업 반짝매장’ 2월 1~14일 운영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화장품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남원농협 하나로마트(고죽동)에서 ‘남원 화장품기업 반짝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마련된 행사로, 시민들이 지역 화장품 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체험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는 관내 화장품 기업 6개사 △원스킨화장품 △세너럴 바이오(주) △제이그라운드 △썬지가미 △코빅스 △하이슬이 참여해 기초화장품과 바디케어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해외 수출을 진행 중인 제품과 남원 지리산권 원료를 활용해 개발한 화장품 등 지역의 특색과 기술력을 담은 제품들이 함께 전시·판매돼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운영 기간 일부 제품은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구매 고객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 수립

남원소방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상위 안전 전략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복합화되는 현대 재난 양상에 맞춰 ‘정밀 예방’과 ‘시민 체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남원소방서는 화재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력구 등 31개 특별관리시설물을 ‘골든존’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의 관 주도 단속 방식에서 탈피해, 시설 관계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안전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